

# MLB 선발 꿈 이룬 양현종, '카우보이 모자' 썼다

〈수훈선수〉



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 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에서 텍사스의 양현종(33)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텍사스 투수 최고령 선발 데뷔 기록 3.1이닝 4피안타 8K 1실점 호투하다 타순 한바퀴 돈 뒤 고전 팀 3-1 승리 이끈 '수훈선수'로

좌완투수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성공적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양현종은 6일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1이닝 동안 66개의 공을 던지며 4피안타 1볼넷 8탈삼진 1실점했다.

그는 1-1로 맞선 상황에서 공을 넘겨 승패를 기록하지 않았다. 평균자책점은 2.08에서 2.25로 약간 올라갔다.

양현종은 삼진을 무려 8개나 잡아냈는데, 이는 한국 출신 투수 선발 데뷔전 최다 탈삼진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박찬호(은퇴)와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각각 5개씩을 기록했다.

양현종은 33세 65일로 MLB 텍사스 투수 선발 데뷔 최고령 기록도 세웠다.

아울러 1980년 대니 다윈 이후 텍사스 투수로는 처음으로 3.1이닝 이하를 소화하며 8개 이상의 탈삼진을 기록했다.

양현종은 1회 세 명의 우타자를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다.



승리한 경기에서 수훈 선수에게 수여하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인터뷰하는 양현종. (제프 윌슨(Jeff Wilson) 기자 트위터 캡처)

첫 타자 바이런 벅스턴을 삼구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산뜻한 출발을 했고, 후속 타자 조시 도널드슨에게도 헛스윙 삼진을 끌어냈다.

양현종은 넬슨 크루스를 상대로는 볼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으로 스윙을 유도해 아웃카운트를 추가했다.

2회에 실점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선두 타자 카일 갈릭을 유격수 땅볼로 잡은 양현종은 후속 타자 미치 가버에게 좌월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2구째 가운데로 쏘던 직구를 가버가 잘 공략했다.

이후 양현종은 후속 타자 호르헤 폴랑코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맥스 케플러는 8구 풀카운트 승부 끝에 시속 127km 슬라이더를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꽂아 넣으며 루킹 삼진으로 처리했다.

양현종의 삼진수는 3회에도 계속됐다.

그는 선두 타자 미겔 사노를 삼구삼진 처리했고, 9번 타자 안드렐튼 시몬스는 스트라이크 아웃 낮아 웃으며 잡았다.

타순이 한 바퀴 돈 뒤에는 고전했다.

양현종은 벅스턴에게 좌익수 키를 넘어가는 2루타를 허용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양현종은 도널드슨을 1루수 파울플라이로 잡고 이닝을 마쳤다.

투구 패턴을 읽힌 양현종은 1-1로 맞선 4회 연속 안타를 허용했다.

크루스에게 중전 안타, 갈릭에게 원바운드로 왼쪽 팬스를 넘어가는 인정 2루타를 내주고 무사 2-3루에 몰렸다.

양현종은 가버에게 첫 볼넷을 내주며 무사 만루 위기에 놓였지만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양현종은 폴랑코를 상대로 바깥쪽 높은 공으로 헛스윙을 유도하며 귀중한 삼진을 잡고 교체됐다. 볼펜투수 존 킹이 무실점으로 이닝을 끝내 양현종의 자책점은 늘지 않았다.

텍사스는 1-1로 맞선 6회 무사 1-3루 기회에서 상대 투수 폭투로 역전했고, 이어진 1사 2-3루에서 앤디 아바네스의 희생타로 추가점을 뽑으며 3-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KIA 안방서 '징크스 탈출' 나선다



원정길에서 돌아온 KIA 타이거즈가 안방에서 '징크스 탈출'에 나선다.

KIA는 지난 4월 30일 한화전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으로 3연승을 안고 원정길을 떠났다. 하지만 KT 위즈와의 첫 대결에서

싸움이 3연패를 당했고, 올림픽 대표팀 예비엔트리 선수들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파로 사직에서 예정됐던 4일 경기를 쉬면서 마이너스 승률을 가지고 홈으로 돌아왔다.

KIA는 7일부터 홈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이번 시리즈의 목표는 '징크스 탈출'이다. '두산'과 '주말'이라는 달갑지 않은 징크스가 동시에 KIA를 기다리고 있다.

KIA는 최근 2년 두산에 절대 약자였다.

2019시즌 상대전적에서 3승 13패의 지독한 열세를 기록한 KIA는 지난해에도 두산에 상대로 단 3승을 얻는 데 그쳤다. 2년 동안 6승 26패(승률 0.188)의 전적을 기록하면서 KIA는 두산 가을 역사의 숨은 공로자가 됐다.

올 시즌에도 개막전전부터 만났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4월 4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시즌 첫 경기에서 KIA는 1-4 역전패를 당했다. 2021시즌을 연

오늘부터 두산과 3연전

지긋지긋한 '두산전 약세'

'주말 전패' 기록도 날려야

입장권 할인 등 '패밀리 시리즈'

'에이스' 브룩스는 7이닝 2실점의 호투에도 패전투수가 됐다.

두산전 열세와 함께 KIA가 마주한 또 다른 징크스는 '주말 전패'다.

올 시즌 KIA는 토·일요일에 치른 주말 9경기에서 모두 패를 기록했다. 내용도 좋지 못했다.

9패 중 7패가 선취점을 내고도 기록한 역전패. 단 한 점도 내지 못하고 승리를 내준 영병패도 한 차례 있었다.

브룩스는 주말 3경기에 나와 20이닝을 4자책점으로 틀어막으며 1.77의 평균자책점을 찍었지만, 승 없이 2패만 기록하고 있다.

느긋하게 주말 야구를 기다리던 KIA 팬들은 허탈한 패배의 기억만 쌓고 있다. 특히 일요일은 5연패, 야구 없는 월요일에도 KIA 팬들은 패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징크스 탈출'을 외치며 주말 3연전을 기다리고 있지만, 팀 상황이 좋지는 않다. 부상 도미노로 개

막전 라인업과 전혀 다른 라인업이 구성되고 있다.

KIA는 두산과의 첫 만남에서 최원준(우익수)-김선빈(2루수)-터커(1루수)-최형우(지명타자)-나지완(좌익수)-류지혁(3루수)-김호령(중견수)-한승택(포수)-박찬호(유격수)를 앞세워 대결했다.

현재 최형우, 나지완, 류지혁이 나란히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초반 부진했던 김호령을 대신해 좋은 활약을 해줬던 이창진도 등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좀처럼 박준표의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으면서 불펜에서도 장현식과 정해영의 부담이 크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난세의 영웅이 필요한 주말 3연전이다.

한편 KIA는 이번 주말 3연전에서 '패밀리 시리즈'를 연다.

7일은 '대학생의 날'로 정해 대학생에게 입장권 30% 할인 혜택을 준다. 대학생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수제쿠키도 증정한다.

8일에는 '어버이날' 행사가 진행된다. 부모님 팬 508명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선수단은 모자에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카네이션 모양의 어버이날 엠블럼 패치를 달고 댈다.

9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다. 사생대회, 애니메이션 방영이 준비됐고 어린이 팬에게 '홈런볼' 과자 5000개도 선물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첼시, 레알 꺾고 UEFA 챔스 결승 진출

베르너·마운트 연속 골로 2-0 승 ... 맨시티와 우승 다툼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스페인 강호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9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에 올랐다.

첼시는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텔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2020-2021 UCL 준결승 2차전에서 티모 베르너와 메이슨 마운트의 골에 힘입어 2-0으로 완승했다.

지난달 28일 원정으로 열린 1차전에서 1-1로 비긴 첼시는 1, 2차전 합계에서 3-1로 앞서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첼시가 UCL 결승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첫 결승에 진출했던 2007-2008시즌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 밀려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1-2012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꺾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바 있다.

9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오를 기회를 얻은 첼시는 같은 잉글랜드 팀이자 올 시즌 '트레블'을 노

리는 맨체스터 시티와 결승에서 맞붙는다.

UCL 결승에서 잉글랜드 팀 간 맞대결이 성사된 건 2008년(첼시-맨유), 2019년(리버풀-토트넘)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올해 1월 첼시의 지휘봉을 잡은 토마스 투헬 감독은 위기에 놓여있던 팀을 UCL 결승에 올려놨다.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의 UCL 준우승을 이끈 투헬 감독은 역대 챔피언스리그(전신 유러피언컵 포함) 최초로 다른 두 팀을 지휘하며 두 시즌 연속 결승에 오른 감독이 됐다.

반면 지네딘 지단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는 3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할 수 없게 됐다.

2015-2016시즌부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가 이후 2년 연속 16강에서 탈락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명예 회복'을 노렸으나 끝내 준결승에서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 광주FC '느긋하게' ... 전남드래곤즈 '치열하게'

K리그1 광주, 휴식 뒤 서울과 대결

K리그2 전남, 강행군 속 경남 원정

광주FC는 '느긋하게', 전남드래곤즈는 '치열하게' 주말을 맞는다.

광주는 이번 주 예상치 못했던 휴가를 얻었다. 8일 오후 7시 FC서울과 홈에서 K리그1 2021 14라운드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경기가 연기됐다. K리그에는 약제지만 광주 입장에서는 얻는 게 더 많은 휴식이다.

광주와 서울은 올 시즌 특별한 라이벌 관계다.

지난 시즌까지 광주를 지휘했던 박진섭 감독이 계약 해지를 하고 서울로 이동했고, 반대로 지난 시즌 서울에서 감독대행을 맡았던 김호영 감독이 고향팀 광주 지휘봉을 잡으면서 묘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됐다.

이번 경기는 박진섭 감독이 적장으로 익숙한 광주전용구장을 찾는 첫 자리이기도 했다.

사령탑의 자존심을 건 승부, 안방에서 예정됐던 경기라서 서울전에 대한 광주의 부담이 컸다. 특히 지난 13라운드 울산전 패배로 11위까지 내려오면서 '반드시 이겨야 할' 승부가 됐다.

광주는 돌발변수에 '느긋하게' 주말을 보내고 바로 이어지는 11일 주중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상대는 승점 3점 차로 광주 뒤, 최하위에 위치한 수원FC다.

특정에서 동물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경기에서 광주가 패한다면 최하위로 내려가게 된다.

염원상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광주는 주말 휴식 뒤 주중 경기에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느긋한 광주와 달리 전남의 마음은 급하다.

전남은 지난 1일에 이어 5일 연달아 '강팀'을 상대했다.

1일에는 FC안양과 '4연승'을 놓고 다투고, 5일에는 대전하나시티즌과 '2위' 싸움을 했다. 결과는 1무 1패. 안양에 후반 막판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내렸고, 대전과는 0-1로 뒤진 후반 28분 나온 장승현의 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과 대전이 승점 1점씩 나누어 가진 사이 안

양은 5연승 질주를 하면서 K리그2 순위 싸움에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3위 전남과는 승점 4점 차가 지 멀어졌다.

K리그2에서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전남이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는 안양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전남의 강행군은 창원축구센터로 이어진다. 전남은 9일 오후 4시 경남FC와 11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경남 수비수 김영찬을 뚫어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김영찬은 올 시즌 K리그2 선수 중에서 수비지역에서 가장 많은 43회의 공을 차단한 선수다. 볼 차단 기록 외에도 공중볼 경합 성공 69회로 3위, 클리어링은 35회로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빌드업 능력에서도 김영찬이 눈에 띈다. 김영찬은 올 시즌 전진패스를 341번 시도했고, 268번 성공시켰다. 두 항목 모두 K리그2 선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전남이 김영찬을 넘어 승리 행진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